

-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의안 번호	3291
----------	------

발의연월일 : 2026. 7. .

발 의 자 : 정병용 의원

1. 주 문 : 하남시의회는 신도시 지정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극심한 출퇴근 교통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4개 광역철도망(GTX-D, 위례신사선, 3·9호선 연장)의
신속한 구축과 정부 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

가.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33만 명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자족
시설이 부족하여, 경제활동 인구(20~50대, 약 20만 명)의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며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함.

나. 위례 하남 등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고도 심각한 교통 차별을 받는
주민들의 교통 정의를 실현하고, 개별 노선 접근을 넘어 수도권 동부
광역철도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주민들의 실제 의견을 반영한 통합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

3. 이 송 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4. 건 의 문 : 붙임

-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국토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하남시에 4개 권역(미사·감일·위례·교산)을 신도시로 지정하여 미사·감일·위례 3개 권역은 조성을 완료하였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 신도시는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도시의 팽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의 성장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교통의 불편, 기반 시설 부족, 과밀학급 등 신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하남시 인구는 33만입니다. 이 중 20대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20만 명에 달합니다. 하남시의 자족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지옥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하남시 현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통인프라 확충’이 45%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특히 4개의 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 교통망은 하남시의 가치를 더할 것으로 시민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남시에서 역점 추진 중인 광역교통은 ▲위례신도시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황산사거리를 경유하여 하남교산으로 이어지는 GTX-D노선 ▲미사강변도시 내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교산 신도시 내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입니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황산사거리를 경유하는 GTX-D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사업은 개별 노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수도권 동부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동-서부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 황산사거리를 경유하여 하남교산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 동일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도 극심한 교통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위례 하남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및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사업 관련 하여, 주민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4일

하 남 시 의 회